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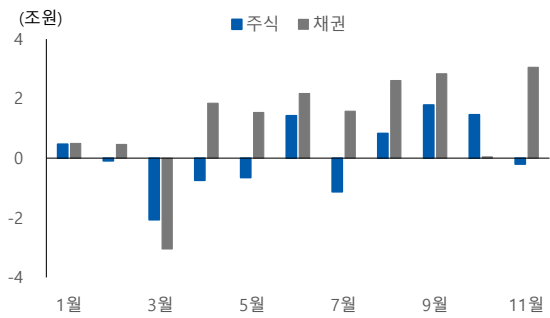


2차전지는 Go, 반도체는 일단 Stop

1. 11월 해외주식환매로 주식펀드 순유출

-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11월 우리나라의 해외주식펀드는 7,070억원이 순유출. 사모펀드의 해외주식 환매 5,108억원이 큰 영향을 주었음.
- 국내주식펀드는 ETF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1,933억원 순유입.
- 국내주식펀드는 이익실현이 늘어나면서, 9~10월에 비하여 순유입 규모 감소.

11월은 해외주식 환매 증가로 순유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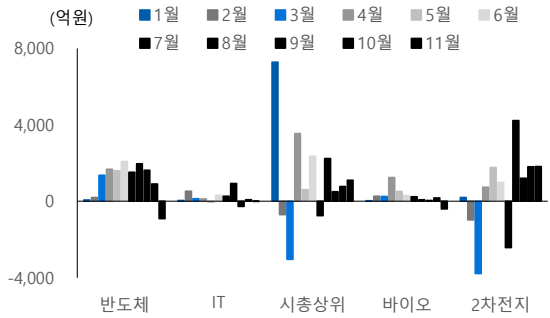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2차전지는 Go, 반도체는 일단 Stop

- 국내주식펀드 중에서는 2차전지와 시총상위 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
- 모멘텀이 강해지는 반도체ETF는 이익실현이 늘어나면서 순유출로 전환
- 국내 액티브주식 중에서는 배당주와 가치주 관련한 펀드로 자금. 해외주식펀드 주요 유형은 자금 유출이 많았음

국내주식 테마 중에서는 2차전지 자금 유입, IT 및 반도체 자금 유출 전환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11월 해외주식 환매로 주식펀드는 순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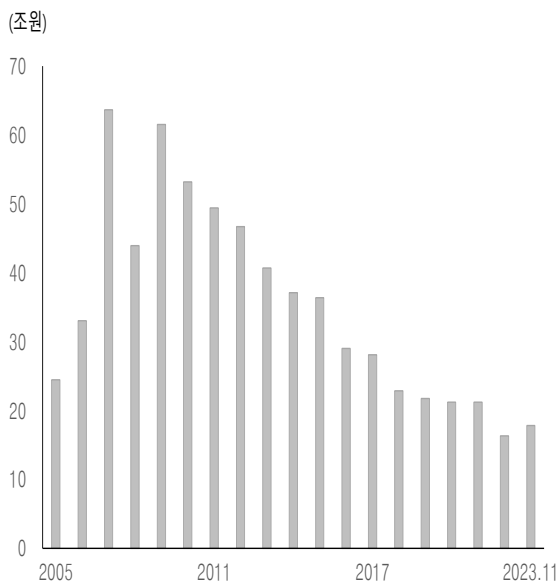
미국 연준 위원들의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언급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11월 우리나라의 해외주식펀드는 7,070억원이 빠져나갔다. 이 중에서 사모펀드의 환매 규모는 5,108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사모펀드의 월간 환매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사모해외주식펀드는 미국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인 5월에 3,685억원이 환매된 적이 있다. 공모해외주식펀드도 이익실현이 늘어나면서, 11월에 1,963억원이 환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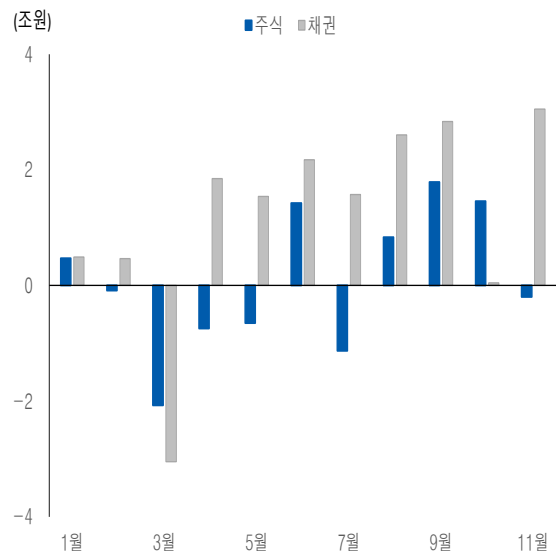
국내주식펀드는 ETF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1,933억원이 순유입되었다. 레버리지 ETF와 반도체 ETF를 중심으로 자금 유출 규모가 커지면서, 9~10월의 월간 순유입규모 1조원보다는 규모가 줄어들었다.

[차트1] 국내주식 액티브펀드는 연초 이후 순자산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11월은 해외주식 환매 증가로 순유출 전환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2차전지는 Go, 반도체는 일단 S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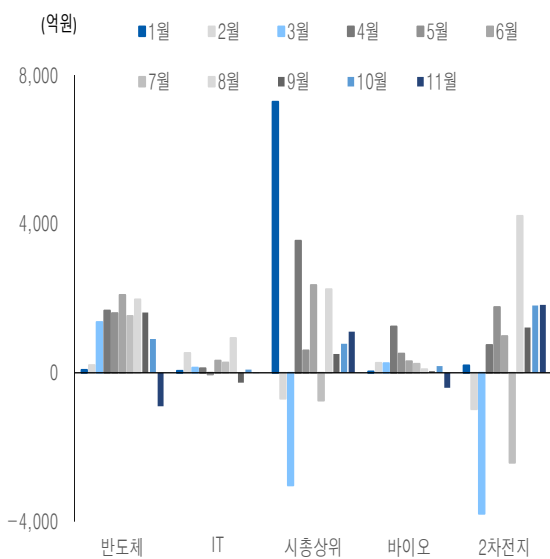
국내주식펀드를 주요테마로 살펴보면, 2차전지와 시총상위 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2차전지 ETF는 2달째 자금 유입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주가 하락에 따라 저가 매수를 기대한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모멘텀이 강해지는 반도체ETF는 이익실현이 늘어나면서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반도체 ETF 중에서는 운용기간이 오래된 ETF를 중심으로 이익실현이 늘어난 점이 특징적이었다.

Top10 등 시총상위주를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도 자금 유입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헬스케어펀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이면서, 자금 유출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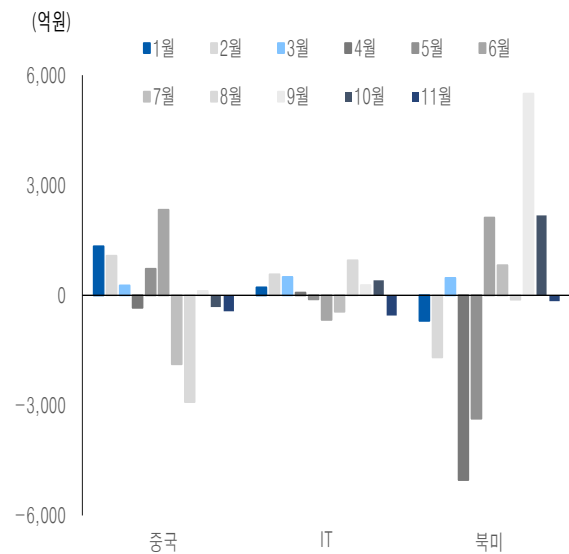
해외주식펀드는 인도 유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형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 미국펀드와 IT 펀드는 성과가 좋아지면서 이익실현이 늘어났고, 중국펀드는 부정적 전망으로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차트3] 국내주식 테마 중에서는 2차전지 자금 유입, IT 및 반도체 자금 유출 전환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해외주식펀드는 IT 와 북미 펀드 이익실현 늘어나면서, 설정액 감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자금유입 상위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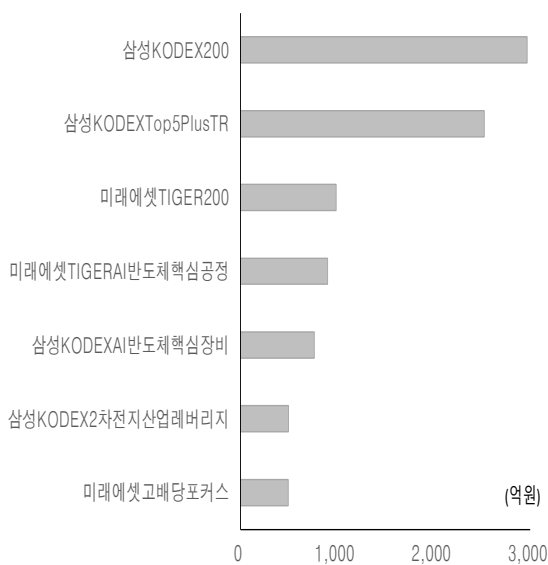
11월은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KOSPI와 KOSDAQ 관련 레버리지 펀드에서 이익실현이 크게 늘었다. 반도체 관련 ETF도 월간 수익률이 20%에 육박하면서, 환매가 늘어났다.

11월 자금유입 상위펀드는 KOSPI200과 반도체 신규 ETF, 배당주펀드 등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액티브주식 중에서는 배당주와 가치주 관련한 펀드로 자금 유입이 이어졌고, 중소형주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있었다.

해외주식펀드는 인도와 미국배당주, 중국 IT에 투자하는 펀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미국기술주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누적수익률이 높아진 기술주 관련 대형펀드에서 환매가 크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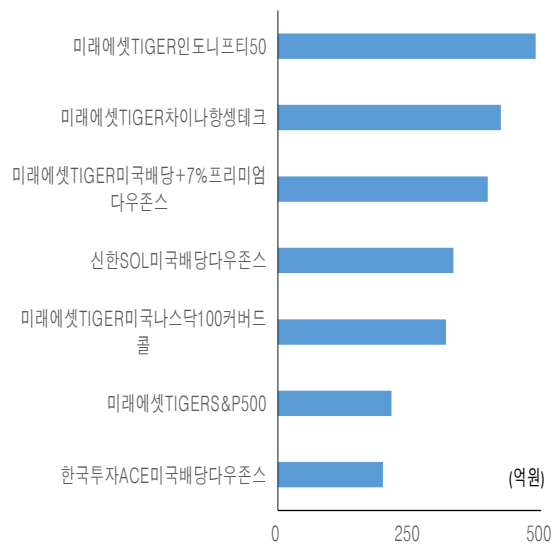
11월은 그동안 투자했던 펀드의 이익실현 기회를 잡은 투자자들이 늘어난 시기였다. 아울러 시기적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배당과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반도체 등의 투자가 눈길을 끌고 있다.

[차트5] 11월 국내주식펀드 자금유입 상위 펀드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11월 해외주식펀드 자금 유입 상위 펀드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